



순천향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권영주 교수

철쭉과 일출

4월 하순과 5월이 되면 우리나라 산하에는 철쭉이 군집을 이루어서 철쭉 축제가 열리는 곳이 많다. 철쭉은 여러 가지 선명한 색상의 꽃으로 파란잎들과 함께 피어나 산하를 아름답게 물들인다. 철쭉은 진달래와 연이어 핀다. 진달래는 잎이 없이 꽃만 피고 꽃잎은 부드럽고 독성이 없는 편이나 진달래 술은 부정맥을 유발하는 수가 있다. 철쭉은 독성이 강해 먹을 수 없다.

꽃은 선명하고 진달래보다 그 꽃잎은 두텁다. 물가에 자
타나는 철쭉은 수달내라 한다. 황
매산의 철쭉은 산정상이 운
해처럼

뒤덮혀 있다. 새벽 황매산에 힘겹게 올라 철쭉과 한몸이
되어 동쪽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보면 온 몸이 두둥실 하
늘로 날아오르면서 환희가 가슴에 피어오른다. 떠오르는
햇살이 꽃잎속에 스며들기도 전에 온 천지는 환한 웃음을
머금고 햇님의 미소에 화답한다. 광대한 우주의 한 장면
이 다시 펼쳐지고 만물은 고요함 속에 넘치는 에너지의
활력을 담아낸다. 봄의 색깔이 넘치는 진흥의 바다속에
잠겨있고 서서히 솟아 오르는 햇님의 모습과 함께 신비스
런 색깔의 하늘빛과 오묘한 조화속에서 봄의 생명이 모두
녹아있다. 찬란한 그대의 입술 속에 머금은 빨간 앵두처
럼 꼭 깨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 모든 세상을 비추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 모든 힘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
는 그대의 사랑과 자비속에서 생명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태양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산다.





또한 모든 것이 진리의 세상속에 있음을 잊어버리고 산다. 철쭉과 일출의 한 장면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진리의 이름다움 그 자체일 뿐이다. 자연은 크나 큰 스승이자 배움의 터이며 진리 그 자체다. 우리는 생명의 진리속에 움트고 피어나는 봄의 정취를 자연의 한 가운데 서서 내 자신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감정을 느끼면서 환희의 세계로 들어가보자.

수양 벚꽃

4월은 매화에 이어 벚꽃의 계절로 이어진다. 벚꽃은 일본 꽃이라 하여 한때는 마구 베어 버린 때도 있었으나 이제는 봄철 우리나라 산하에는 풍성하고 화려한 벚꽃 잔치가 열리고 봄의 기운을 맞이 한다. 벚꽃 중에는 수양 벚꽃이 있는데 수양벚나무처럼 늘어진 가지에 피어 있는 수양 나무 벚꽃은 또다른 봄의 정취 속에 우리들의 심신을 녹여준다. 벚꽃은 함께 피어 군집을 이룰때 그 장관이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벚꽃은 봄을 즐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 늘어진 가지에 핀 벚꽃의 그 우아한 몸짓은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면 예쁘게 차려입은 여인이 하늘하

늘 그네타는 모습이다. 수양 벚꽃나무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그 모양이 우아하면서도 풍족하고 화려하다. 세상을 풍성하게, 세상을 자유롭게, 세상을 이롭답게 뿜어내는 봄의 가운데 두 그루의 수양 벚꽃나무와 함께하고 있다. 두 그루가 마주보고 있는 오래된 수양벚나무는 서로 사랑의 밀어를 나누는 것 같다. 서로의 지태를 마음껏 들어내면서 서로들 조화롭게 세상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이 모습을 보고 가슴속에서 감탄의 소리가 솟아 나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랴. 정작 그대는 봄의 여왕이요, 계절의 수호신이요, 생명의 풍요로움을 기억하는 표상이 아니던가.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도시로 모여듬에 따라 공기는 혼탁해지고, 인심은 나빠져 서로의 중요함을 잊어버리고, 나만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잠시 여유를 갖고 자연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이 자연의 일부이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느껴보아야 한다. 자기 자신이 우월한 존재는 결코 아니며 서로의 역할이 다른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속에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을 갖어보자. 그러면 자신을 깨우치고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지 않을까. / MP저널